



올해 1~8월 방송한 46편의 미니시리즈 가운데 12편에 달하는 로맨스 장르 드라마가 대부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청률로 침체일로로 걷고 있다. 사진은 24일 종영하는 tvN '너는 나의 봄'과 21일 막을 내린 JTBC '알고 있지만'의 각 장면.



사진제공 | tvN·JTBC

## “현실과 동떨어진 뻔한 사랑이야기 식상”

12편중 10편, 시청률 3%이하 기록  
서현진의 '너는 나의 봄' 최대 3%  
한소희 화제작 '알고 있지만' 1.7%  
“전개속도 느리고 작위적 표현 한계”

로맨스 드라마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청춘남녀의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 드라마 대부분이 5%(이하 닐슨코리아) 시청률을 채 넘어서지 못한 채 퇴장했다. 청춘스타나 톱스타들도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로맨스 드라마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기승전 로맨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로맨스 장르에 크게 기대했던 방송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12편 중 절반이 3% 이하 시청률  
올해 1~8월 종영하거나 현재 방영 중인 총 46편의 미니시리즈 중 사극을 제

외한 로맨스 드라마는 12편이다. 전체의 26%가량이 로맨스 장르인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은 6월 종영한 KBS 2TV '오월의 청춘'의 5.7%로 나타났다. 그 다음 작품은 지난달 방송을 마친 tvN '간 떨어지는 동거'(5.3%)였다.

이 외에는 대부분이 3%에 미치지 못했다. 서현진·김동욱이 주연해 24일 종영하는 tvN '너는 나의 봄'은 3.4%로 시작해 최근 1%로까지 떨어졌고, 송강·한소희 조합이 화제를 낳은 JTBC '알고 있지만'도 21일 1.7%로 막을 내렸다. MBC '오! 주인님'(2.6%), KBS 2TV '멀리서 보면 푸른 봄'(2.6%), JTBC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2.4%) 등은 화제조차 모으지 못했다.

반대로 액션이나 '막장' 등을 내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거뒀다. SBS '모범택시'와 tvN '빈센조'가 각각 16%,

14.6%였고, 올해 시즌2·3을 방영한 SBS '펜트하우스'도 최고 29.2%를 기록했다.

●“관습적 반복”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로맨스의 매력을 반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김공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긴장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로맨스 소재가 정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 시청자 심리가 전개 속도 빠르고 자극적인 소재를 향한 관심으로 발현된 탓”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연애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로맨스 소재가 현실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5월 '코로나19 시기의

연애·결혼·출산 변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25~29세 미혼 성인남녀 2000명 중 78.1%가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새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이 같은 흐름에서 드라마가 “대리만 족마져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분석이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학 교수는 “제작진이 이전의 정형화한 틀에 기대 관습적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로맨스 장르가 그만큼 자기복제하며 작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맨스를 내세우면 어느 정도 시청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단일한 판단도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BTS’, 상반기 두번째로 많이 오른 해시태그



BTS

SNS플랫폼 트위터에서 '#BTS'(방탄소년단)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오른 해시태그로 꼽혔다. 23일(한국 시간) 트위터가 공개한 올해 1~6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 순위에 따르면 '#BTS'는 1억 5000만건으로 2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을 뜻하는 '#BTSArmy'(아미)와 히트곡 '#Dynamite'(다이너마이트)도 각각 6위와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미국 라디오 방송사 시상식 '#iHeartAwards'(아이하트라디오 뮤직어워즈)였다. 또 다른 케이팝 그룹 '#EXO'(엑소)와 '#Enhyphen'(엔하이픈)이 각각 7위와 8위에 랭크됐다.

MBC, '중계사고' 관련 민병우 보도본부장 사퇴

MBC가 자사의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23일 MBC 올림픽 방송사고 조사위원회는 관련 책임에 따라 민병우 보도본부장이 사퇴했으며, 송민근 스포츠국장도 중계방송 제작에 참여한 자회사 MBC 플러스 노병희 사장 등 관련자들이 교체 및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인권과 상대 국가 존중 등 공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과거 올림픽 사례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면서 “국제 대형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검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번 올림픽 중계방송에 부적절한 자막을 수차례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장기용 현역 입대...래퍼 비와이도 해양경찰 복무



장기용

연기자 장기용이 23일 현역 입대했다. 장기용은 이날 SNS를 통해 “멋진 30대를 위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는 이날 입대 장소와 시간은 알리지 않았다. 장기용은 입대에 앞서 송해교와 주연해 11월 방송하는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촬영을 최근 마쳤다. 래퍼 비와이(이병윤)도 이날 입대했다. 비와의 소속사 데자부그룹은 23일 비와이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해양경찰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트와이스, 첫 영어 싱글 ‘더 필스’ 동시 공개



트와이스

걸그룹 트와이스가 첫 영어 싱글 ‘더 필스’를 전세계 동시 공개한다. 2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더 필스’를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1일 0시, 한국 시간 오후 1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 중인 트와이스 멤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트와이스는 ‘더 필스’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6월 선보인 미니 10집 ‘타이스트 오브 러브’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 6위로 진입하는 등 해외 인기를 입증했다.

염혜란, 성평등 기여 영화인 ‘백델리안’ 선정



염혜란

배우 염혜란이 한국영화계 성 평등에 기여한 올해의 ‘백델리안’으로 선정됐다. 23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영화 ‘빛과 철’의 주연 염혜란과 함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제작한 영화사 더랩프의 박은경 대표,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 ‘내가 죽던 날’의 박지완 감독을 ‘백델리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델리안’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양성평등 주간 행사인 ‘백델리안 2021’을 맞아 영화계 성 평등 실현에 공헌한 영화인들을 꼽는 것이다. ‘백델리안 2021’은 다음달 4일 막을 연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순규·부끄똥·MC 민지...제2의 자아 ‘부캐 전성시대’

(소시 씨니) (문세윤) (정준하)

방송가 넘어 광고계까지 강타  
엠넷은 ‘부캐 선발대회’ 시즌2

‘부캐... 부캐... 부캐...’  
여기 저기 ‘부캐’(부캐릭터)가 넘쳐난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부캐’ 열풍이 블록버스터급으로 몰려온다. ‘부캐’의 인기 속에 각 방송사 프로그램은 물론 스타들도 이를 내세워 모험과 도전에 나섰다. ‘부캐’를 앞세워 ‘제2의 자아’를 공개한 이들이 우선 눈길을 끈다. 걸그룹 소녀시대 씨니는 본명인 ‘순규’로 팬들과 만난다. 라이프타임 웹 예능 ‘전설의 연습생’에서 노래, 춤, 예능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15년차 연습생 순규로 변신한다. 아이돌의 조건을 갖췄지만 데뷔하지 못하고 있는 순규가 현역 아이돌을 만나 데뷔 노하우를 전수 받는 콘셉트이다.

첫 번째 게스트로 그룹 슈퍼주니어의 은혁과 려욱이 출연한다. 30일 MBC플러스 유튜브 채널 ‘올 더 케이팝’에서 처음 공개되며 다음달 2일부터 매주 목요일 라이프타임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개그맨 문세윤도 ‘부캐’를 내세워 가수로 데뷔했다. 개그맨이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며 ‘부끄똥’이라 부캐명을 정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함께 출연하는 가수 겸 프로듀서 라비가 그를 도와 22일 데뷔곡 ‘은근히 낮기려요’를 발표했다. 라비는 “세운 형의 잔망스러운 매력과 유쾌한 에너지가 있지만 마냥 웃기지만 한 건 아니다”며 “부끄럽고,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대변한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앞서 방송인 정준하도 부캐 ‘MC 민지’로 당당하게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새 싱글 ‘아이 세이 우!’(I SAY WO O!)를 정식 발매했다. 자신의 SNS에 싱글 커버 이미지를 올리며 제법 가수 티를 냈다. MC 민지는 2016년 MBC ‘무한도전’의 ‘영등고속도로 가요제’에 출연하며 만든 이름이다. 정준하는 이후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5’에도 이를 앞세워 화제를 모았다. 스타들의 부캐는 케이팝채널 엠넷이 11월 방송하는 ‘부캐 선발대회’ 시즌2에 모일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최고를 가리는 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시즌1에 이어 부캐 ‘리태리’로 출연하는 가수 이지훈을 비롯해 다양한 트로트가수와 개그맨 등이 부캐 경연을 펼친다. 일각에서는 방송가를 넘어 광고계까지 강타한 ‘부캐’의 과도한 열풍에 시청자 피로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방송연예계에 ‘부캐’ 열풍이 불어오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개그맨 문세윤(왼쪽)이 ‘부끄똥’이라는 부캐로 가수 겸 프로듀서 라비와 함께 가수 데뷔곡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 그루블린

## 백종원 기세 주춤...‘요리 프로그램’ 다작에 반응 미뿔

‘국민음식’...‘클라쓰’ 등 올해만 7편

방송가 섭의 ‘0순위’로 꼽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최근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요리 콘텐츠를 잇달아 내놨지만 새롭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KBS 2TV ‘백종원 클라쓰’를 비롯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골목식당), ‘맛남의 광장’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종영한 JTBC ‘백종원의 국민음식’, 지난달 티빙으로 공개한 ‘백종원의 사계’ 등 올해에만 7편에 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오른쪽)가 가수 규현과 함께한 JTBC ‘백종원의 국민음식’의 한 장면. 사진제공 | JTBC

외하고는 이렇다 할 화제를 모으지 못했다.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가르쳐주는 ‘백종원 클라쓰’는 3% 시청률(이하 닐슨코리아)에 머물렀다. 라면·카페 등 해외에서 들여와 정착한 음식을 짚은 ‘백종원의 국민음식’도 0.9%로 마무리했다. 여기에 ‘골목식당’마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최고 시청률 11.9%(2020년 1월1일)가 최근 반 토막났다. 일각에서는 요리 소재에만 국한된 행보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 대표는 “국내 요식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만 방송 활동을 하겠다”는 철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음식·식재로 소개나 요리

법을 전수하는 내용이 위주가 됐다. 23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인간미가 깃든 입담, 요리 내공 등 백 대표의 방송 스타일이 이미 익숙해진 상황에 각 프로그램의 포맷이 비슷해 더 이상 관심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백 대표도 최근 관련 고민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관계자는 “백 대표가 요리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도 방향성에 관한 주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맛남의 광장’은 중영한다. 이달 초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 또 가을 공개하는 넷플릭스 ‘백스피릿’으로 새로운 포맷에 도전한다. 배우 김희애와 여자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등과 함께 전통주를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이다.

유지혜 기자